

한정동선착

12

고하동업

예술

四

四

10



신선한정  
고하이정

예술 산책할래요는 마음챙김이 필요한 청년, 특히 고립·온둔 청년이 집과 동네를 공감각으로 깨우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리예술 프로젝트입니다.

## 책을 이루는 부분의 순서



오늘 행복한 순간이나 장면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색종이에 적어 돼지저금통에  
넣어주세요!

표지 사진 © 2025 윤관희

### 요약 편

프로젝트 개괄 6 | 홍보 자료 6 | 도움 받은 곳 8 | 더 보러 가기 9  
참여자 수 추이 10

### 현실 편

프로젝트 후속 대화 18

### 적응 편

이끌이 자체 평가 대화록 28 | 누굴 만났나 28 | 여기서 뭐하는지 알기 어려움 29 |  
즐겁고 편안한 ○ 같이 만든 X 30 | 적은 숫자를 최선이라 부를 수 있나 32 |  
점차 마음을 열게 돋는 도구 34 | 매번 같은 미끄럼틀 36 | 약속문 효과 37 |  
편한 분위기에 한몫한 것들 39 | 무엇무엇하는 사이 40

### 계획 편

프로젝트 짜임새 44  
공동 산책 계획 53  
정릉에는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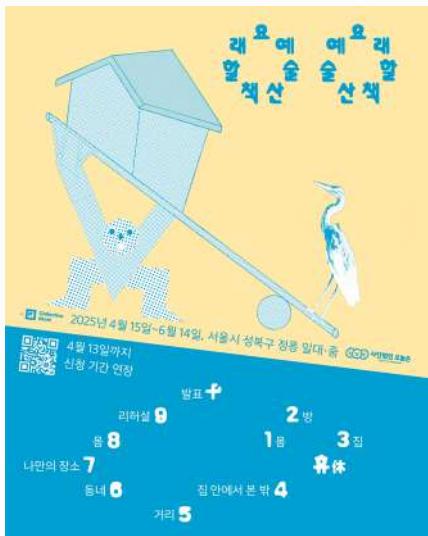


## 프로젝트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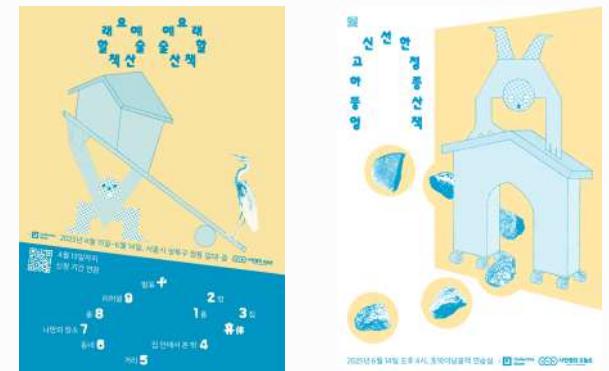


프로젝트 개요를 알리는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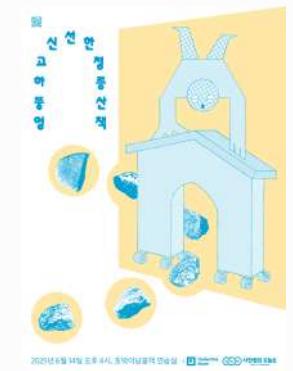
## 홍보 자료



프로젝트를 알리는 포스터



모집 기간 연장을 알리는  
포스터



공동 산책을 알리는  
포스터

## 도움 받은 공간



### 청년재단 회의실

청년들에게 무료로 열려 있는  
공간. 프로젝트 회의와 온라인  
모임을 위해 여러 번 회의실을  
빌렸다.

[더 보러 가기](#)



### 호박이넝쿨책–야책

2016년에 문을 연 독립서점.  
독서 모임, 낭독 모임 등이 상시로  
진행 중이다. 호박이넝쿨책에서  
운영하는 연습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마음 편히 모임을 운영하고  
회의할 수 있었을까.



### 정릉천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과 쉼을 주는  
자연 공간. 정릉동 일대 하천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 모임

#### 기록지

[https://  
artwalk.notion.site  
/?pvs=143](https://artwalk.notion.site/?pvs=143)



엉뚱하고  
신선한

정릉 산책  
스케치 영상

[https://  
youtu.be/  
CMSw787Gnng](https://youtu.be/CMSw787Gnng)



## 참여자 수 추이

14명

신청서 작성한 사람

12명

참여하기로 한 사람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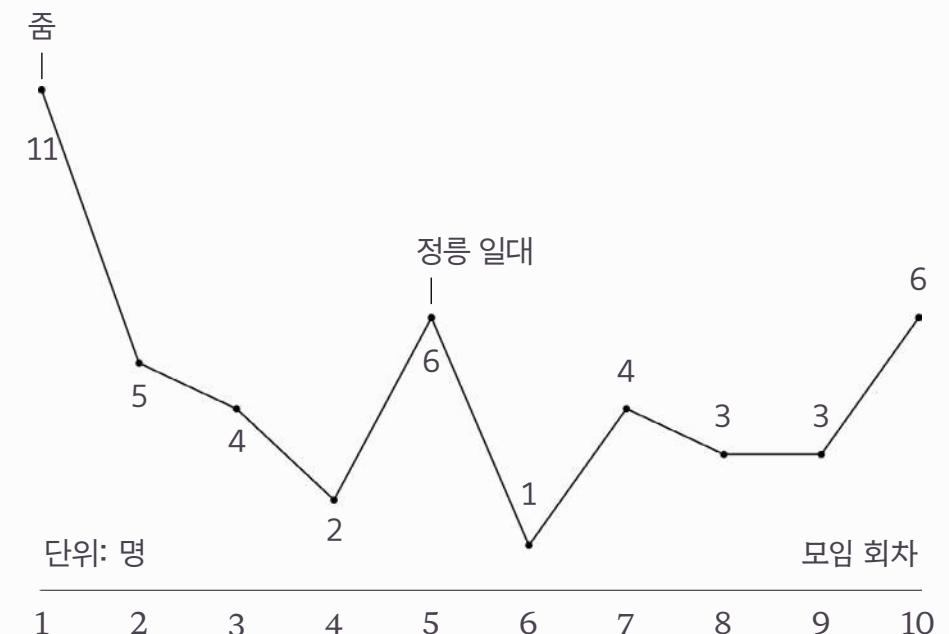
빠진 사람

4명(33%): 성북구  
인근 거주자  
8명(66%): 성북구  
이외 지역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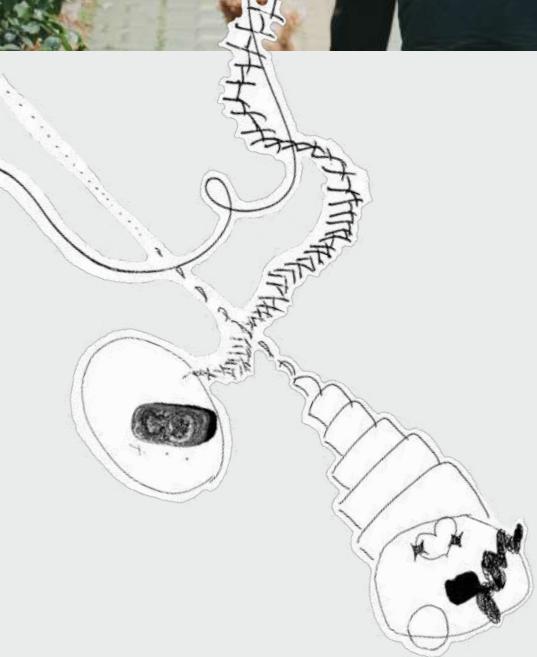
첫 번째 모임 전  
참여 불가능하다  
전함, 허리 다침,  
허리 디스크, 취업,  
취업 프로그램  
수강 등.



민자가 6번째 모임에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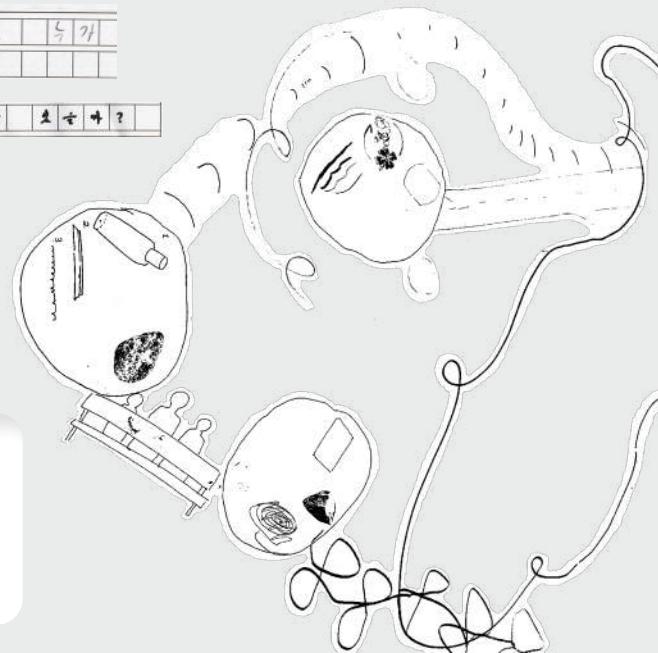
흙은 가만히 머물러 앉기보다는 적잖  
제 움직이기를 선호했다.

나쁜 나쁜 데 하다니 살상했구나?

처음 듣는 이 노래가

시큰둥하게 찾는데 와 누가  
라고 한다.

제가 손을 얹으니 손을 쓰오구나?



3. 내 이름은 짱돌이야. 요즘 나는 건조해. 나는 정릉천에서 왔는데 여기는 오리가 흐르는 촉촉한 곳이었어. 나는 훌러가는 소리를 좋아해. 스피커가 많은 집에 이사를 와서 스피커 너머로 훌러가는 소리를 들어보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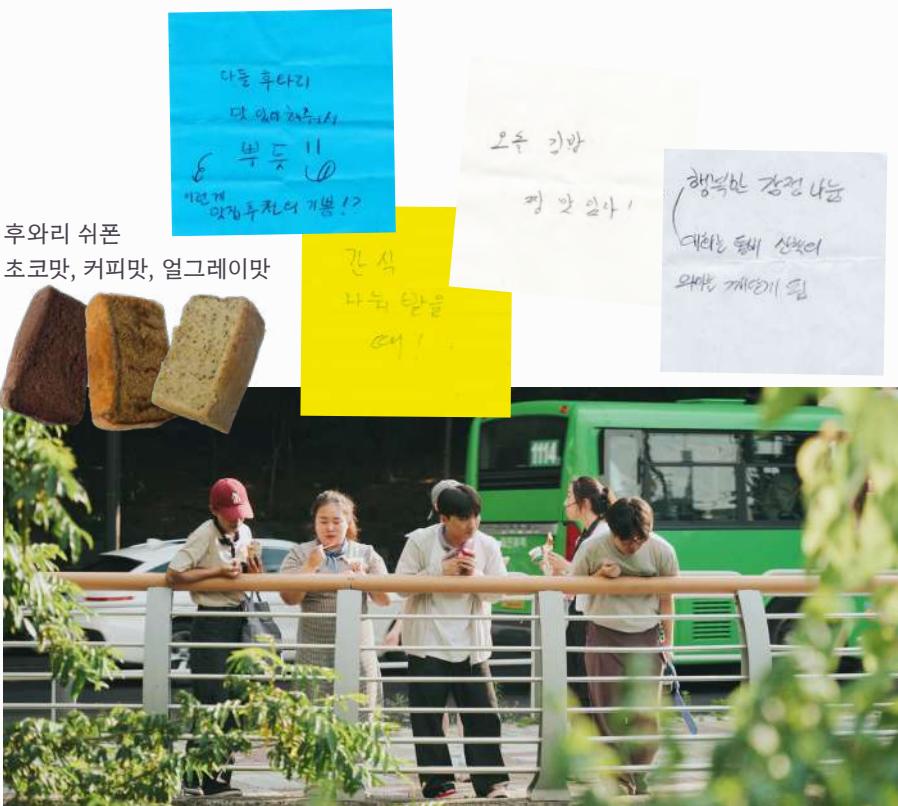
3. 내 이름은 지지야. 요즘 내 감정은 어리둥절이야. 오랜 물소리가 흐르고 큰 바위 아래서 보호 받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경그라니 어딘가로 옮겨져 긴장되는 한편 설레기도 해. 사실 그 물이 궁금했거든. 많이 차가울까 물살이 얼마나 깊까. 그런데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사실 나는 새로운 걸 좋아해. 여기서 얼마나 오랜동안 가만히 있던 거지. 큰 바위는 품이 커서 나를 이렇게 받아줬구나. 예측불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 내가 원하는 만큼.

부스길을 위로하는 따스한 햇빛. 한껏

개까마리 보니 응접장을 빼고 잠하니  
노이즈는 더 나빠져 빙어냈다.



## 프로젝트 후속 대화



7경계가 있는 있으먼서도  
7경계하지 않는  
경계가 흐려진 사이.  
'전형'에서 '현실'에  
가까워진 사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오늘 맛있는 빵과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공유할수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능갈고 도로걸기와 맨발로 걸기  
아침동을 술기기도 재밌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이가 되고 정중이라는 꽃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된 사이

이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떤 사이가 된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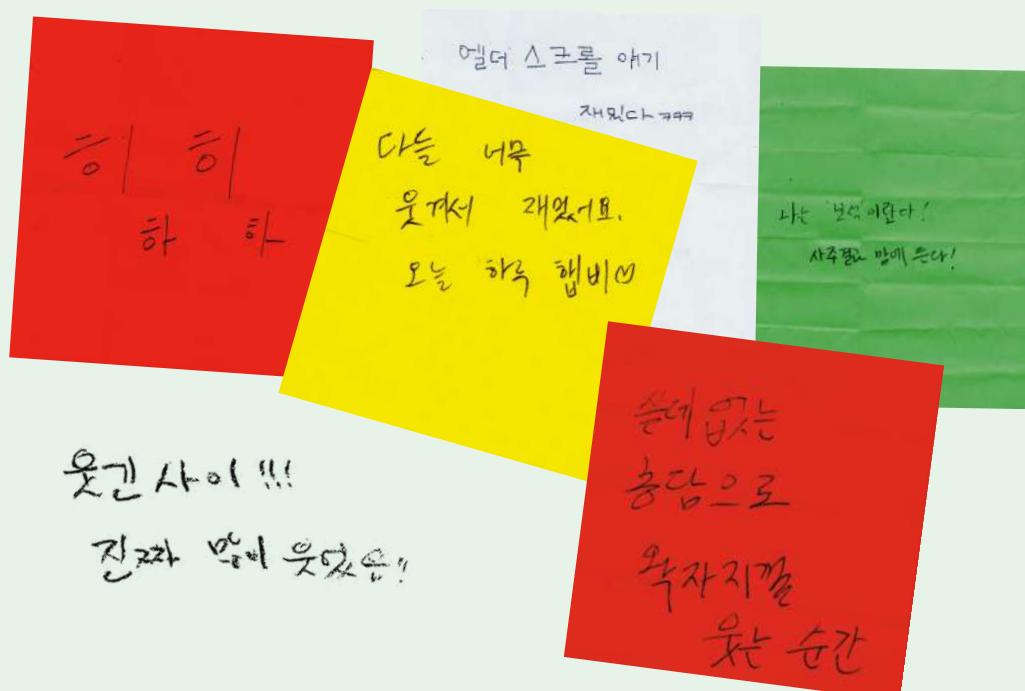
신호등 색깔 바뀐 것을  
듣고 말하는 10번 만난  
사이

언제든 날 좋을 때,  
모여서 산책하고  
너스레를 떨며 애기할 수 있는 사이.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는  
산책  
메이트 ^\_^



마치 게임 친구 같았지?  
기쁜 현실을 잠깐 잊을 수 있게  
해 주는 에너지 드리고 좋은 친구.  
같이 있으면 일할 때 안 떠드는 아이에서도  
딱 생각 날 것 같다.



좋은 사람들, 날씬, 시간

나는 럭키 걸이다"

그리고

나도 너 차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생각난

세상은 놀음,  
낯선 사람들은  
농담과 즐기는 소음!

사람하고 만나서 농담하고 재밌게  
지낸 걸 좀 깨먹은 것 같아요. 그러한  
그림이 나에게 좀 없었는데 여기 와서  
환대해 주는 사람들 덕분에 편하게  
이야기하고 웃는 일상적인 교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임이 끝나면 다른 모임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볼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낙관적일수가?!

^^

전 원래 불안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낙관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엔 낙관의 끝을 봤던 것  
같아요. (...)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하려  
노력하지, 저절로 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절로 하게 돼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알게 됐고. 이런  
모습을 나의 평소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 사람 좋아하는구나? ㅋ)

4 생각보다 많을 땐  
하는구나? ..(내 기준)

마음 편하게

작업하기, 징징하며 예의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 아니,  
의지하는 마음. 마음을 예는 법.  
다친 대로, 더 나아지려 애쓰지 않는 것.

새롭게

발견하게 된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라는 그룹 안에서  
모임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

주변을 보려고 찾는 것만으로  
 내가 악수한 일상적인 풍경이!  
 서로 웃음을 알게 된 거 같아요!  
 냄새가서 물을 놓아, 어색한 걸들.  
 불어오는 바람... 있었지만  
 보자 찾은 걸을  
 보기 최기록.



오감 말고  
 또 어떤 감각이  
 있을까 계속 찾게 되는  
 신경감각...?

균형감각!!



학습을 자주 해야 돼 된다.  
 학습이 많아고 인식을 자주함.  
 내 행동걸이에 신경을 쓰게 된다.  
 잘 알고 있는거...

예술 산책할래요에  
 참여하면서 이전보다  
 더 신경 쓰게 된  
 감각이 있나요?



지구별을  
 여행하는  
 감각!  
 나를 위한 감각.  
 자연스러운 감각.  
 동지 없이 조심조심해!  
 하지만 자신 있게  
 한 걸음 다가가는  
 감각

- 돌아보기
- 관찰하기

항상 잘 알던 사람을 만났을 때와  
 잘 모르던 사람을 만났을 때의  
 내 다른 점을 좀 찾게 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감각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뜯자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뜯자리와 뜯자리 사이에  
잡초가 있었거든요? 그 잡초 놀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 옆으로 피해서  
듯자리를 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생각했어요.

화재, 환경, 웃음!

아주 오래전에 \_ 홍기서에서

참여한 모임였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으로 기록될 거예요.

이름이들의 환경과 진실 - 재생이란 준비

그 순간 깊어 고마워요!

이걸 뭐라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잡초를 피해 뜯자리를  
편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 없어요.  
전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잡초는 그냥 늘 있는 거였거든요.  
내 앞에 있는 걸 그렇게까지—좋은  
의미로—섬세하게 내 앞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게 좋았고요. 잡초도 아껴주는  
사람이면 나도 아껴주겠지, 뭐. (웃음)  
그 마음이 되게 좋았어. 전 그걸로  
기억할 것 같아요. 잡초 피해서 뜯자리  
까는 사람.



애정줄이란 것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 할 것 같아요~

= 솔풀을 잠시 멎었어요.  
거리에서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온란 둥근 눈을 감고 소리타 눈꺼풀에  
드디어는 혀상을 느끼는 순간이 따사로웠  
어요. 오래 눈감을 수 있는 거면  
되면 좋겠어요.

정릉도 기억에 남겠지만  
여러분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릉이 여러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나의 세대를 만난 듯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2025. 5. 20. 6번째 모임  
명주에게 진실이 아크릴 펜을  
빌려줬다. 명주가 풀에  
아크릴을 칠하면 예쁠 것  
같다고 말했고 진섭은  
아크릴 펜 주머니를 열었다.  
그 장면. ~~상~~ 순간이 마음다웠다.

차운으로 모임!이라는 느낌의 모임을 했고  
들이하고 선선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뭐지 궁금기도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 좋은 연상. 재밌게 놀았다.

예술 산책할래요가  
당신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나요?



## 이끓이 자체 평가 대화록

누굴 만났나

엊그제 진광 ‘고립·은둔 청년’이나 ‘고립·은둔감 있는 사람’과 같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표현이 어딘가 문제적이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프로젝트 홍보할 때 고민스러웠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집 밖 생활이 낯설고 방 안에 들어가 견디기는 싫은데 용기 내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풀어 표현해 보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우린 포괄적으로 열어둔 상태로 진행하게 됐네요.

엊그제 홍보할 때까지는 그래도 대상을 한정해 보려 했죠. 그래서 화요일 오후로 잡았고요. 고립·은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많단 걸 더 생각했다면 다른 시간대를 선택했을 거예요.

진웅 결국 원하는 대상과 좀 만났던 것 같나요?

민지 끝나고 보니 이번에 만난 분들이 우리가 원했던 대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 왜요?

저는 함께한 분들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그 이외 시간에 자기 공간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와 만나는 동안 일 외에도 외출하는 즐거움이나 누군가를 만나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좀 신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 기로에서 단톡에 저희 김밥 주문할 건데 뭐 먹을 거예요 조금 있다 만나요 하는 연락 보고, 아! 나가자 했다고.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서 뭐하는지 알기 어려움

신청자 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는데,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ANNE(지원) 대학 생활에 지친 청년, 이런 식으로 이거 내 얘기인데 싶은 게 있었다면? 조금 더 상황 설정이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도 ▲▲도 ★★도 ‘여기 뭐 하는지 모르겠’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나서 공감이 돼요.

실제로 무슨 활동을 하는 모임인지 신청 단계에서 그려졌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매주 산책할 거고 어디 어딜 다닐 거예요 하면, 아 여기 가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겠구나 이게 좀 그려졌을 것 같아요.

● 이게 프로젝트인지 모임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다 짜여 있어야 할 테고, 모임은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 어떤 부분에서는 결정이 늦어져도 괜찮았겠죠. 이런 불분명함이 신청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유보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 맞네요. 또 기간도 길긴 길었고.

● 앞에 내세운 예술이란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네요.

● (진광에게) 다음번에 하게 되면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고 싶나요?

● 그쵸. 저희가 산책은 만났고 다른 키워드와 못 만난 상태여서 이렇게 제목 지었다 생각해요. 거리예술과 산책의 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각 활성화를 목표로 삼은 이 산책에서 어떤 장면을 그리고 싶은지 표현할 어휘를 찾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즐겁고 편안한 O, 같이 만든 X

● 참여자들이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감각하고 갔으면 하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 종종 이야기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의견이 이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전해줘야 한다 이런 것보다 서로 즐겁고 편안한 활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치지 않았나. 그래서 발표라는 말보다 ‘공동 산책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말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 다음번 홍보 문구에 공동 산책 넣어야겠다. (웃음)

● 공동 산책을 위해 작은 거라도 이것저것 같이 만드는 상상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은 이번 기획보다 더 밀도 있는 심화 코스에 가까워야 했겠다…

●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워크숍과 공동 산책을 같은 그릇 안에 담긴 했지만, 이게 잘 융합됐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 기획자 욕심이었나… 굳이 피날레 없이 그냥 모임만으로 마쳐도 됐을 텐데, 지원서 작성할 때 유효해 보이고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마무리 과정이 필요 없었을 수도?

● 하지만 전 같이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공동 산책이 좋았어요.

● 저는 참여자들이 이끌이들과 무언가 하나를 같이 해냈다는 느낌을 가졌을지는 좀 의문스러워요.

● 일단 그걸 두고 충분히 소통한 시간이 너무 없었네요. 같이 해냈다! 하기엔 여러모로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싶어요.

적은 숫자를 최선이라 부를 수 있나

❶ 기획 초반부터 지금껏 세은은 참여자 수가

기획자 수 이상이어야 한단 입장을 견지했잖아요. 제겐

사단법인 오늘은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내부적인 기준을 정한 걸로 이해됐어요. 결과만 보면

그 기준은 충족하지 못 했고요, 그런 우리의 최선은

뭐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에겐 우리가 같이

경험하려 한 환경이나 관계 설정 그리고 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치롭게 보이거든요.

❷ 물론 한 명이 뜻깊은 경험을 했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에만 만족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도 다수가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 어느 정도 의미 있다 생각한 게, 빠진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싫어서가 아니라 취업하게 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몸이 아파 그랬던 거니까요. 취업으로 빠졌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자 수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❸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섯 번째 모임에서 ■■ 혼자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늘은 ■■밖에

없어요~ 하하..’하고 멋쩍게 넘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 명도 괜찮아요~’하며

분리된 스탠스로 대했다면? 우리 마음이 크게

내비쳐진 건 아닐 테지만 오신 분은 뭔가 신경이

쓰였을 것 같거든요; ‘아, 오늘 다른 사람들이 안 와서

그런 거구나’하고 이끌이들의 걱정에 영향을 받았겠다

싶어요.

❹ 아, ‘여러분~ 몇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❺ 하하. 맞아요. 근데 속으로 ‘아앗, 오늘 한 분

왔네...’ (웃음) 그렇게 스탠스를 좀 분리하면, 참여자가

이끌이로부터 모종의 부담이나 책임을 덜 느끼지

않을까. ‘그래. 다음엔 안 와도 되겠다’ ‘다 안 왔고 나는

남았네’ 이런 게 아니고 ‘난 한 명이지만 여기서

혼자서도 편하게 잘할 수 있구나.’ 이럴 수 있는.

❻ 관계에 초점을 둔 접근이라서 좋게 느껴지네요.

참여자에게 일어날 괜한 생각이나 불안의 여지를 막는.

❼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은 안 돼요’ 말고

뭐 어떻게 불리든 그냥 거기서 느끼는 그대로면

어땠을까. 물론, 그게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❽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게 기획자가 취할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은 다수에게 다양한 효과가 벌어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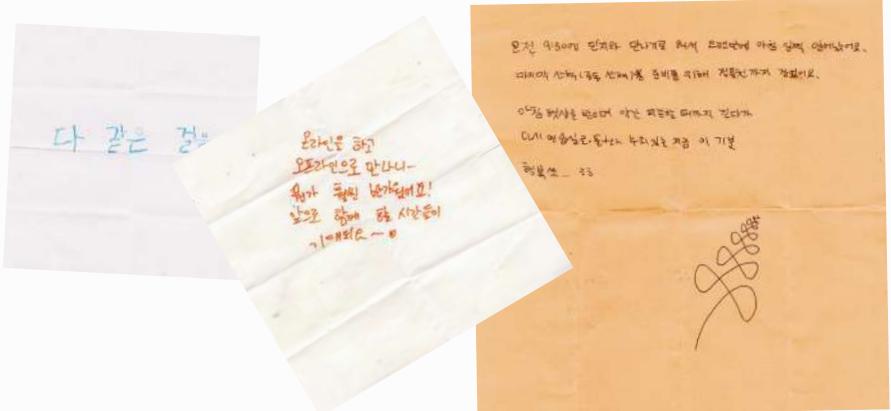
원하고, 예술인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에 굉장한 초점이

있고. 그래서 그 두 틈을 좁혀줄 수 있는 직업군이

전 기획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자가

이 중도의 선에서 서로의 갭을 잘 메꿔줄 때 제일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나 싶어요.



점차 마음을 열게 돋는 도구

❶ 우리가 키트에 모임에 필요해서 넣은 것 가운데  
왜 애정돌을 넣었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❷ 산책하면서 거리에서 자칫 쉽게 지나치는 것 중  
하나가 돌이란 이야기를 키트 회의할 때 나눴잖아요.  
사람도 물건도 공간도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부터  
의미 부여가 되니까 우리가 애정돌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닐까 싶어요.

❸ 애정돌이 정릉과 참여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쁜 돌을 구매해도 되는데 굳이  
정릉을 돌아다니면서 찾았잖아요. 애정돌을 통해  
참여자들이 정릉을 더 편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각자의 애정돌을 발견한 공간  
사진을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그곳을 직접 걸으며  
각자의 애정돌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전  
같이 돌아다니면서 돌 줍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❹ 그때 온라인에서만 만나는 참여자가 있을 경우를

염두에 뒀던 터라, 그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도  
기대했죠. 근데 저는 키트가 뭔가 아쉬워요. 키트가  
품 들인 것에 비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임을 위해 일단 도구를 건네긴 했는데 온라인  
마치고 나서 쓰임이 너무 일시적이었달까요. 차와 돌만  
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까? 반문하게 되기도  
하고요.

❺ 전 노트와 사각거리는 연필, 연필깎이를 같이  
보낸 게 흥미로웠고요. 참여자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 믿거든요.  
이런 섬세한 감각을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온라인  
다음 오프라인으로 단계를 나눠 구성했듯 참여자가  
점차 마음을 열게 돋는 키트를 만들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느껴져요. 매일 표시하는  
체크리스트나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성취감 느끼게  
되는 만들기 도구라던가 그런 걸로.

❻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들만 넣자고 하면서 많이 빠졌죠.  
❼ 맞아요. 두 가지 생각이 상충한 건데요. 두 세 달  
만나고 나서 이제 다른 생각이 든 거죠; 그래도 좀 더  
키트에 욕심냈어야 했나? 우리가 이번에 만난 분들  
떠올려 보면, 몇몇은 다양한 활동을 요하는 키트를 줘도  
금방 잘했을 것 같고, 웬지 몇 명은 안 쳐다봤을 것

같고. (웃음) 그래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분들이 많았다 보니 그들을 위한 뭔가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요.

❷ 이 이야기는 누굴 만나려 했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상이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들에게 맞는 구체적인 아이템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식으로요.

❸ 우린 정릉과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 예상했는데 거의 그러지 않았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둘은 별개였어요. 온라인은 안 왔는데 오프라인에 오고, 오프라인은 안 왔는데 온라인에 오는 상황들을 보고 각각에 맞는 수요층이 있다 싶었고요.

매번 같은 미끄럼틀

❹ 온라인 모임의 초반부에서는 목소리만 노출한 것도 우리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였는데 왜 갈수록 장벽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엇, 왜 힘들어하는 거지?’ 이런 느낌.

❺ 개인차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라면 이번처럼 처음에 얼굴 안 보고 시작하는 게 편했을 것 같은데, ▲▲가 처음부터 얼굴을 드러냈다면 더 편했을 것 같다고 얘기해주니까 그제야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❻ 온라인으로 집 내부까지 공개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❼ 저는 이건 적응의 문제라고 봐요, 과감하게 불편함을 시도해 보는 것도 전략일 수 있으니까. 모두를 너무 불편하지 않게 하려다 보면 일이 어려워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따지자면 배려하려고 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❽ 무해해지려고.

❾ (공동 산책에 오지 않은 참여자 후기를 읽어보며) 무해해지려 하는 게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해롭진 않게 느껴주신 것 같아요.

❿ ‘고립’ ‘은둔’ 같은 말을 굳이 꺼낼 일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가 여기 오면 게임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 편하다고 해준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❻ 한편으로는 다른 모임이나 각자 평소에는 어떻길래 여기에서 거기에서 없던 해롭지 않다는 걸 느낀 건지, 그 요소는 뭘까 궁금해요.

❼ 긴장되게 만드는 게 뭐였을까요?

❽ ‘평가받음’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이 자신이 했던 말이 오해될까 되새긴다는 얘기해주면서, 여기에선 별로 그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소한 인간관계에서도 내 말에 대한 평가나 오해가 있을 텐데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부담이 적었나 봐요.

그런 얘기도 나눴잖아요, (좋은 의미로) 약속문이 굳이 필요했었나? 하는 얘기.

근데 그건 모인 사람들이 평소에도 약속문 내용을 잘 지키는 편이어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대로 약속문을 굉장히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약속문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속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읽은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매번 같은 미끄럼틀 타고 어떤 곳으로 내려가는 느낌.

근데 저는 그 약속문을 형식적으로 읽고 넘어가 버리지 않았으면 해서 마지막 날 롤링 페이퍼 쓸 때 조금 더 우리 상황에 맞는 구체적 약속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 꺼냈던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래서 어느 정도 느슨한 약속문이었기에 포용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상황에 일일이 세세하게 맞춰서 약속문을 만들었다면 어쩌면 너무 딱 맞아서 덜 자유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더 많았으면 약속문의 효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한 열댓 명 정도라면?

제가 참여했던 어떤 프로젝트는 우리보다 약속문이 훨씬 길었어요. 그럼에도 약속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생겼고, 그때 내부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끝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엄청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컴팩트한 약속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안전한 밀도’라는 표현이 좋았어요.

저도 안전한 밀도 재밌어요.

#### 편한 분위기에 한몫한

우리 처음 대면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저희끼리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첫 오프라인 모임도 그랬고 되게 편했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편함을 잘 느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요. 우연한 우리의 캐미스트리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만들고 운영한 덕분인지.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는 걸 잘 못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편하게 서로 눈을 보며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프라인 모임에서 딱! 눈을 보고 말했을 때 뭔가 친해진다고 해야 하나, 가까워지는 감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부담을 짊어진 팀원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사가 비슷하고 기질도 나랑 잘 맞는 또래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어디 가면 기가 빨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웃음)

⌚ 이 모임의 성격상 여기서 기대하는 바가 비슷해서 아닐까요? 내 포트폴리오를 쌓겠어! 하는 텐션이나, 내가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니 새로운 사람들이지만 관계도 잘 맺어보고 싶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서로 잘 맞아서 안심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 맞아요. 예를 들어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엄청 빠르게 결정하거나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아요.

⌚ 그리고 사단법인 오늘은에서 예산 사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게 우리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한몫했다 생각해요.

⌚ 맞아요. 사단법인 오늘은이 우리가 하는 활동을 믿어주고, 열린 마음으로 지지해 줬던 점도 정말 감사했어요. 아마 우리 이끌이들 사이의 좋은 분위기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의 다정한 분위기가 참여자들과 만나는 모임에서도 잘 전달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련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종의 헤어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 저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참여자들끼리 네트워킹이 생겨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 저는 저희가 딱 사업에서 만난 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교류와 관계를 굳이 무시하지도 않고 과대 해석하지도 않는, 그리고 이제는 지나가는 그 관계의 느낌 그대로도 그냥 있는. 부여잡으면 오히려 나중에 더 불필요한 감정이 생기기도 하니까. 안 만나면 안 만나는 사이. 후속 모임이 생긴다면 후속 모임으로 만나는 사이!

⌚ 후속 모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 저는 있어요.

⌚ 좋은 것 같은데요.

### 무엇무엇하는 사이

⌚ 공동 산책 끝나고 같이 썼던 롤링 페이퍼 질문을 한 번 더 꺼내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이가 된 것 같나요? 이제 공식적인 모임은 없으니 만날 일이 없긴 하지만. 공동 산책 영상만 봐도 전 벌써

때: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9시, 22일 일요일 오후 3시 50분  
곳: 서울연극창작센터 3층 회의실 2, 연남장



## 프로젝트 짜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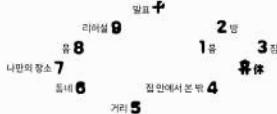
### 모임 주요 내용

#### 공감각

오감에서 출발해 2가지 이상의 감각이 맞닿는  
지점에서 떠오르는 느낌이나 심상을 함께 나눠요.  
오감 외에도 자기 감각, 심리적 감각, 공간 감각, 시간  
감각, 내부 수용 감각, 균형 감각 등을 찾아봤습니다.

#### 거리예술

공동 산책을 위한 사전 작업(함께 어떤 산책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기, 공동 산책에 필요한 지도와  
사운드 제작, 공간 답사, 움직임 연습 등)을 모임에  
반영했어요.



## 키워드

몸, 방, 집, 집 안에서 본 밖, 거리, 동네, 나만의 장소, 몸.  
몸에서 시작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흐름으로  
구성했어요. 매 모임은 이 순환 구조를 따라 주제를  
확장하고 감각을 탐색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 모임 구성 요소

#### 키트

사전에 우편으로 전달해 온라인 모임에 활용했어요.  
감각을 여는 재료, 정릉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물,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애정돌

정릉의 여러 장소에서 발견한 애정돌을 참여자들에게  
하나씩 전달했어요. 이 돌은 모임에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활용됐고, 공동 산책에서는 우리의  
모임을 함께한 기억의 매개체로 등장했습니다.

### 듣기–감각하기–말하기

듣기: 모임을 여는 시간. 지금 내 몸과 마음 상태를  
신호등으로 표현하며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해요.

감각하기: 공감각, 거리예술, 키워드 등을 반영한  
다양한 감각 확장 활동을 경험해요.

말하기: 소감 나누는 시간. 지금 몸에서 들려오는 소리,  
감정 등을 자신의 언어로 나눠요.

약속문

안전한 감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  
매 모임 첫 시작에 약속문을 공유해요.

- ① 나이, 성별, 성정체성, 학력·경력, 경제상황, 장애여부,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에 따른 차이를 이해해요.
  - ② 신체에 대한 평가나 비유, 성차별적 농담, 사회적 경험에 따른 고압적인 표현 등의 언어와 행동을 지양하고, 서로 존중해요.
  - ③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타인을 배려하여 자신의 말하기 시간을 점검해요. 모임 중 말하기 시간에 모두 한마디씩 의견을 더해 우리만의 안전한 밀도를 쌓아가요.

깃발말

**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뜻하는 표현으로,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 모임에서 사용했다.	자동하다**, 망고하다**와 같은 말을 사용해 지금 자신의 기분이나 상태를 편안히 드러내는 게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모임을 만들어 가요.
---	--

행복 저금통

되어 끝판에 이르는  
것을 뜻하며,  
칭찬하거나 활동을  
마쳤을 때 모임에서  
사용한다

정릉에서 만나는 5번째 모임부터 행복한 순간을  
적은 쪽지를 모으다, 10번째 모임인 공동 산책을  
마치고 같이 열어봤어요.



## 1번째 모임: 몸

니들샷이 떠올랐다. 화장품 바를 때 피부가 바늘처럼 따끔따끔한 화장품인데, 목구멍 쪽에 인지도는 감각이 비슷하게 느껴졌다. 목은 좀 따끔한데, 목 넘기고 나서는 부드럽게 차가 흘러 내려갔다. 가슴 부분은 묵직하게 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왜 내가 차의 감각을 이렇게 느낄까? 했더니, 내가 진행 중이라 긴장을 떨치지 못했나 보다. 상반신까지는 긴장이 풀렸는데, 손발까지는 긴장이 남아 있음을 느꼈다.

히비스커스 같은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잘 마실 수 있을까, 그래도 마셔볼까, 하고 처음 물을 우리는 순간부터 예쁜 진분홍색 물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더 마셔보고 싶어졌다. 마시고 나서는 배가 더 고파져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구멍을 넘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는데, 위장으로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위장이 비어 있는 게 더 느껴졌다. 위벽이 차가웠었구나, 비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못 느끼던 감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섰다. 과일 향 풀선껌 맛이 났다. 어릴 때 먹었던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기억은 나지 않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에서 먹었던 와우 풀선껌 먹었던 순간 같은 게 생각났다.

두 번째 몸의 감각을 느낄 때, 목으로 넘길 때 시큰한 맛, 목이 살짝 칼칼했다. 가슴 부분 내려갈 때 부드럽게 내려가고,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서 있으느라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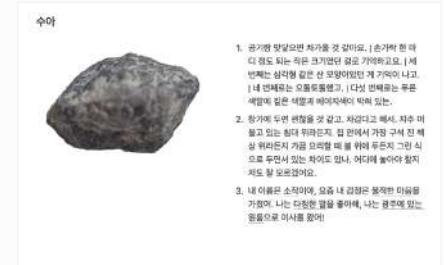
## 2번째 모임: 방

1. 애정들을 관찰하며 발견한 다섯 가지 특징을 알려주세요.
  2. 애정들이 방안 어디에 있으면 어울릴 것 같나요?
  3. 내가 만난 애정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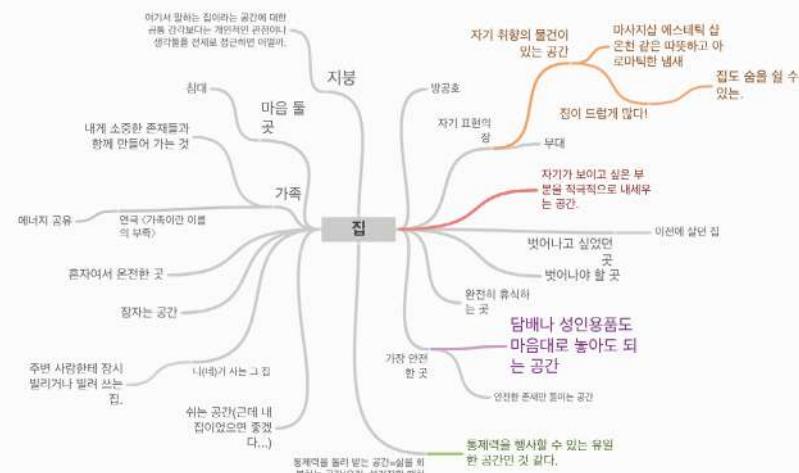


人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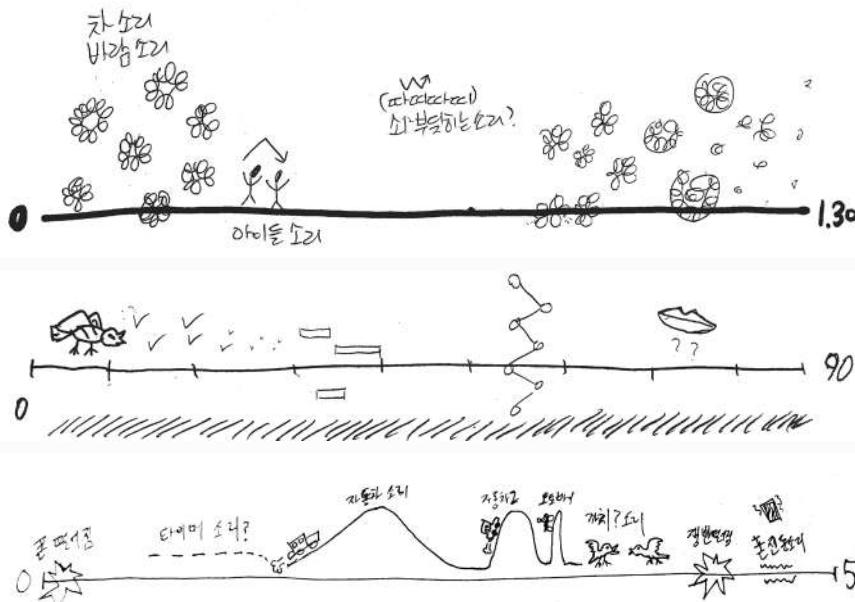


### 3번째 모임: 집



### 4번째 모임: 집 안에서 본 밖



### 5번째 모임: 거리



### 6번째 모임: 정릉 산책



## 7번째 모임: 동네



재밌던게 (사진 두 개를 보며) 식물들을 찾다보니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돌틈 사이 꽃이나 식물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이름이 있다보니까, 너무 외치고 싶었다. 정애야~! 정애야 어딨니! 너무 외치고 싶었다. 외치고 싶은 욕망도 컸다. 찾으면서 냄새들이 많이 났다. 쌀국수, 감자탕, 만둣국 냄새가 많이 났다. 찾으면서 그런 걸 많이 발견했다.

으로 갔는데, 거기 없었다. 여기가 아닌가? 해서 멀리 찾으러 나갔다. 건물 바로 뒤편에 실외기가 있는데, 다른 쪽 실외기에 있었다. 애정돌이 움직였다...!! 애정돌을 찾으면서 도둑이 되어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 재밌었다.

딱 있었다. 주차장 바닥과 시멘트 같은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참을 찾았지만 못 찾았다. 처마 밑이라는 힌트를 보고 진짜 처마를 찾았지만, 결국 진짜 처마는 아니었고 철제 배수관이 처마처럼 보이는 거였다. 납작한 중국 당면 같은 철제 배수관 모양은 처음 봐서 신기했다. 힌트는 도움이 안 됐다 (웃음) 카톡으로 준 추가 힌트를 보고 찾을 수 있었다.

## 8번째 모임: 나만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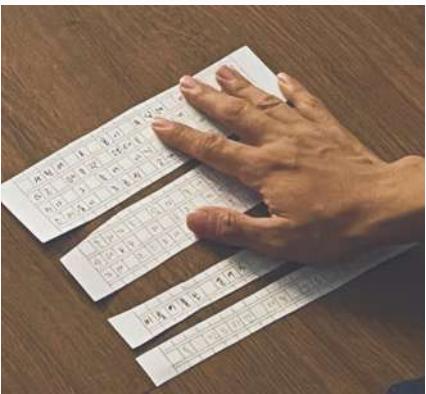
말을 잘 하는 편도 아니고, 사람들이랑 있으면서 억지로 말을 해야할 때 불편감을 느낀다.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 말을 안 해도 그 자체로 편하게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세은이 말한 것처럼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면서도 홍대 같은 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 보기만 해도 그런 에너지를 얻는다.

도 사람을 만나는 편이다. 나라는 존재에게 필요해서 기운이 빨리 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 만나는 약속이 있을 때 기운을 축적하려고 한다. 예전에 갔던 인왕산을 다시 갔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기가 빨릴 것 같은데 하나의 목적으로 만나서 가니까 괜찮았다.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숙제는, 친구라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친구가 뭘까? 오래됐지만 멀어진 친구.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알게 되어 간다. 점점 대인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다. 에너지가 빨릴 것 같은 곳에는 잘 안 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전 축제나 홍대 이런 곳만 가도 매우 매우 기가 빨린다. 오히려 나는 놀이터 같은 어린이 많은 곳에서는 기운을 얻는다. 젊은이가 많은 곳은 힘들다. 어린이가 많은 곳은 좋다.





공동 산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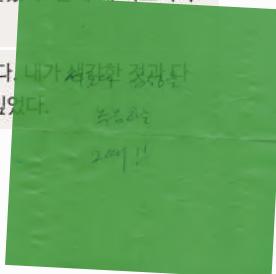
진웅, 민지

낭독극단 호박이넝쿨책 연습실(아리랑로19길 21-1)에서 정릉천 변에 있는 손가정 정자나무(솔샘로18길 54 앞)까지 왕복으로 걸었어요. 정릉역 근처 좁은 골목에서 시작해 큰길을 지나 정릉천을 따라 걷다 되돌아오는 동선이었죠. 몇몇 손님을 초대해 엉뚱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함께 걸었던 이 일을 우린 '공동 산책'이라 불러봤어요.

이들이들은 공동 산책에서 하는 활동을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산책로 곳곳에 배치했어요.

첫 번째는 이전 모임에서 워크숍으로 진행한 활동을 야외에서 다시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었어요. 공동 산책은 우리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이었는데,

나와서 걷기 전이 더 재밌었다. 빵빵에서 양말 트럭이 지나가면서 홍보 소리를 BGM처럼 들리면서 목소리가 나왔다. 너무 좋다, 뭐지? 하고 있었다. 무슨 내용이지 이해하고 싶다 보다, 그냥 사운드를 즐기기 데, 호호꺼가 뭔 말이지? 싶었다. 뭔가 문장들이 훠蜞휘청 뚝딱뚝딱거리는 느낌었다. 와서 읽어봤는데도 여전히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파편적으로 문장을 섞은 묘미를 느꼈다. 처음엔 피식 하면서 기분 좋은 상 그래서 계속 걷기보다 앉아서 쉬고 있는데, 진광이 지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는 딱 (이어폰을) 벗자 마자 연극이 끝난 기분이었다. 연극이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앞에 퇴근길 직장인들이 보였는데, 재었다. 근데 내 차례가 되어 녹음을 듣는데, 내 목소리인데 관객이 되어 듣는 것 같았다. 실제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라고 느꼈다. 재밌었다. 갑자기 모든 사람하고 다른 톤이 들렸다.  
살짝 감동적이었던 것도 있었다. 내가 쓴 글을 남의 목소리로 읽을 때 되게 묘했다. **내가 썼지만 정관다**  
로금 화수  
그때!



첫 모임에서부터 함께한 각자의 애정돌이 산책로  
곳곳에서 튀어나와 미션을 제안하는 형식이었죠.

두 번째는 거리를 새롭게 감각해보는 활동으로  
공감각을 깨우고 참가자들이 서로, 그리고 공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정릉이 주요 활동지였던 TMI 요정  
ANNE(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해줘 심리적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산책길 약도(영우가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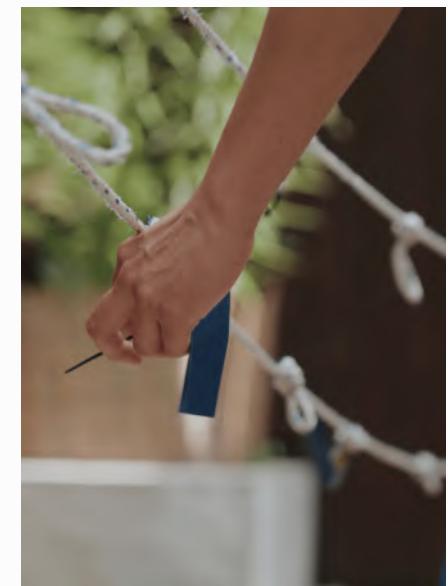


같이 완성한 산책길 약도

### 1 약도 보며 파악하기



### 2 빨랫줄 미션



### 3 눈 감고 걷기



### 4 달팽이진



5 유치원 인사



6 끈 잡고 가기



8 내 몸 산책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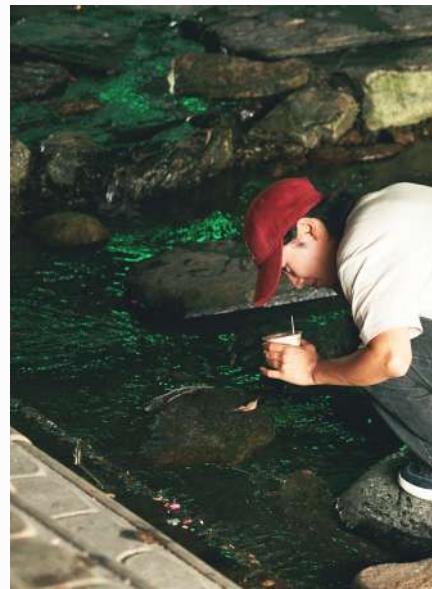
7 신발 벗고 횡단보도 건너기



9 아이스크림 구간



10 멈춰서 귀 기울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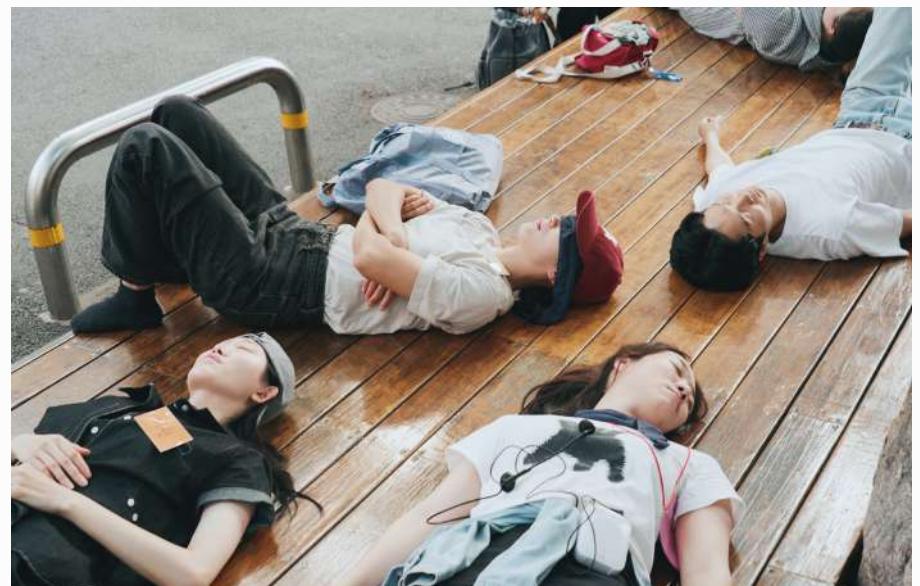
12 두 갈래로 걷기



11 발 담그기 10분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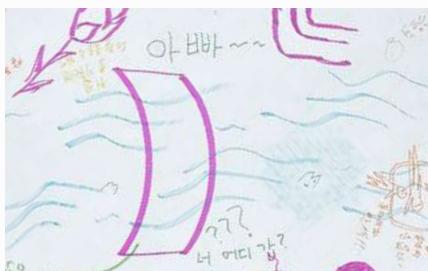
13 정자에 눕기



## 14 나무 포옹하기



15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 16 돌아와 약도 완성하기



정릉에는

ANNE(지원)

정릉 일대를 프로젝트 주요 활동지로 정하게 된 데에  
두 가지 요인이 있었네요.

- \* 정하림, 「서울시 청년의 사회적 고립지수 도출과 생활환경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서울연구원, 2023, 22~23쪽.

첫째. 성북구가 서울시 지역구 중 청년의 사회활동 고립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요. 대학가가 많은 지역구 중 하나이기도 하니,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이 많으리라 짐작했습니다.

둘째. 제 주요 활동 지역이었어요. 정릉에는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릉천의 맑은 물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 간의 따뜻한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매력적인 공간들과 성숙한 어른 활동가들을 프로젝트 이끌이와 참여자 모두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정릉이 모두에게 따스한 비빌

언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참여자 절반 이상이 성북구 이외의 거주자였던 터라 이끓이들은 이동 거리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릉을 산책 지역으로 선택한 것에 이견은 없었어요. 공동 산책까지 마친 후엔 모두가 정릉이라는 지역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정릉에 산책하러 다시 와보고 싶다고 말해주었던 참가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언제든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곳, 나만의 애정을 품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인상을 남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술 산책할래요 프로젝트

이끓이  
민지, 세은, 진광, 진웅, ANNE(지원)

참여자  
명이, 명주, 블루, 비유, 서원, 수아, 영우, 진섭,  
중원, 호호

주최·주관  
콜렉티브 꼼

후원  
사단법인 오늘은

고마운 분  
김가희(호박이넝쿨책—야책 대표)

엉뚱하고 신선한 정릉 산책 공동 산책

함께 산책한 이  
국현, 망고, 명주, 민지, 선영, 세은, 영우, 진광,  
진섭, 진웅, ANNE(지원)

함께 만든 사람  
프로젝트 참여자

영상 촬영·편집  
윤관희

예술 산책할래요 책 보고서

펴낸 날  
2025년 6월 27일

글  
프로젝트 이끓이

그림  
프로젝트 이끓이·참여자

사진 기록  
민지, 윤관희, ANNE(지원)

편집·디자인  
진광

이 책은 사단법인 오늘은 2025 <청년 문화예술 마음챙김 프로젝트> 협력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발행됐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모임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저작권은 콜렉티브 꼼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의 글과 그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